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애들아, 혹시 선물을 받아본 적 있니? 어떤 선물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쁘지만, 깜짝 놀라기도 하지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한 소녀 마리아가 아주 특별한 소식을 선물처럼 받게 되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말했어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선택하셨단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며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천사는 “성령께서 너를 덮으실 것이고,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야”라고 알려 주었어요. 마리아는 너무 놀랐지만 결국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나 두려운 순간을 만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길 원해요”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 친구들,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외쳐볼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배 순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다 같 이

말 씬 봉 독 누가복음 1:26~38절 다 같 이

설 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설 교 자

말 씬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찬송과 축복 기도문과 말씀 나눴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찬 양

내가 매일 해야 하는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나요?
2. 나도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